

69. 요한 1서

요한의 세 편지는 크게 요한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전통 신앙을 위협하는 ‘그리스도의 적들’에게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집필된 것 같습니다.

요한 1서는 빛과 사랑이란 주제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, 첫째 부분(1,5-3,10)에서는 빛이신 하느님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,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른다고 가르칩니다.

둘째 부분(3,11-5,12)에서는 사랑의 사도답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촉구합니다.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그분과 일치하려면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또 하느님께 속한 영과 ‘그리스도의 적’의 영, 진리의 영과 사람을 속이는 영을 제대로 식별하라고 가르칩니다.